



# 7DAYS

2022.04.23.  
저녁 7시 30분  
광림아트센터 장천홀  
(사) 소리로 국제오페라단

## GREETING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1:23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 중에 하나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평범하게 듣고 표현하는 이 소리들은 사실 매질이 없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대기 중에서는 공기 입자의 진동을 통해서 물 속에서는 물 분자들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됩니다.  
때론 딱딱한 고체를 통해서도 소리가 전달됩니다. 하지만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만들어진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입니다. 때문에 소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달하여 표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질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찌보면 이 시대는 수많은 노래의 소리들이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전달하는 '영적 매질'이 없어, 하나님의 준엄한 시대적 사명이 선포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소리로 오페라단'은 하나님의 아픔인 이 땅의 오랜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고 행진할 '영적 매질'의 사명자로서 또한 선포된 소리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감당할 것을 믿습니다.

-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 '소리로 오페라단'을 축복합니다.

김경환 목사

“7days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라!”를 기획하며..

할렐루야!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리로 첫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며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지 고민하며 많은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은 높고 깊고 또 넓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라!' 명령하시어 보여주신 붉은 십자가. 우리 때문에 달리신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부활의 영광과 앞으로 다가 올 부흥을 위해 노래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민섭 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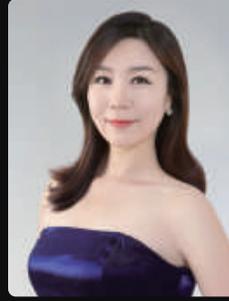
## PROFILE



단장 김민섭



기획이사 전병곤



예술감독 국지은



음악감독 김보혜



음악감독 김미리



음악코치 박정화



미술감독 이진희



바리톤 이승왕



테너 이수철



Team CRUX



바이올린 김경아



첼로 조진영



기타 박성호



아나운서 김보령



주기쁨 찬양팀 (양재 은누리교회)

## PROGRAM

1. 부르심 (예루살렘 입성)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CRUX

2. 기록 (성전청소)

오페라 나부코 중 Dio di Giuda

Baritone 이승왕

Piano 박정화

3. 진리 (유대인의 모략과 거짓)

하나님의 사랑

Soprano 국지은

Viol Town

4. 사랑과 섬김 (세족)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Soprano 국지은

Mezzo Soprano 김보혜

Piano 박정화

5. 회개 (베드로의 부인)

내 주를 가까이

Viol Town

6. 십자가 (고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Tenor 이수철

주기쁨 찬양팀 (양재 온누리교회)

십자가의 전달자

Mezzo Soprano 김보혜

Guitarist 박성호

7. 부활 (소망)

소리로라 하라

Vocalist 김미리

8. 소리로 사명

비전영상

단장 김민섭

나는 어린양을 따르리

전 출연자

# PRAYER

기도문 낭독 김보령 아나운서

## 1. 부르심 (예루살렘입성)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높은 곳에는영광이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로마의 압제에 눌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기뻐 찬양했습니다. 저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북녘땅에도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40만 지하교인들과 체제에 세뇌당한 2500만의 북한 사람들에게 속히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사역에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 2. 거룩 (성전청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거룩해야 할 우리의 성전이 세상의 재물과 권력, 음란과 탐욕에 물들어 있습니다. 분노하며 성전을 청소하셨던 예수님!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예수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인간을 신으로 모시는 북한 땅을 보십시오!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한 채 거짓에 속고 있습니다. 평양에 서 있는 김일성 김정일 저 더러운 우상을 무너뜨리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가 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 3. 진리 (유대인의 모략과 거짓)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 애썼습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던 유대인처럼 살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나 자신을 믿는 삶을 사는 죄를 용서하소서. 비진리가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도 진리되신 예수그리스도가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 4. 사랑과 섬김 (세족)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비천한 종들의 발을 씻기시며 몸소 섬김을 보여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국경봉쇄로 북한 땅의 수많은 영혼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흰 쌀밥 한번 먹이고자 탈북의 길로 내몰린 어미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죄! 목소리조차 내지 않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 5. 회개 (베드로의 부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중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도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저 북녘땅에서 잔인한 고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북한 지하교인들 순교의 피를 기억하시고, 속히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 6. 십자가 (고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도무지 믿지 않는 인간의 무지와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피와 눈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감격스럽습니다. 그 감격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조선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 목숨 다해 복음 들고 나가겠습니다. 소리로는 부르신 주님, 주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여주소서.

## 7. 부활 (소망)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며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회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과거 장대현 교회가 섰던 그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은 무너지고 부흥이 회복되는 영적 부활의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SORIROPERA  
INTERNATIONAL

사역문의 010-5570-8427 / soriropera20@naver.com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317길 37 4층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704-214817 사단법인소리로국제오페라단